



한국교육학회, 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기관이 AI 융합교육 시작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육·과학계, AI 융합교육 공동선언문 발표

“AI, 교육현장서 본격 활용”

음성·안면인식 등 기술 현장적용
학생 스스로 경험, 학습 기회제공

한국교육학회, 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및 과학계 주요 단체들은 10일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I 교과서를 내년 8월까지 내놓고, 음성인식·안면인식 등 AI 기술을 활용한 영어 학습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교육현장에서 AI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및 과학 분야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10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과 공동 주최한 ‘2019 AI 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육 현장에 서 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을 모든 교과와 활동에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개인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최고 전문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모든 학생이 손에 인공지능을 익히기 위해 인공지능의 구구

단으로 볼 수 있는 코딩교육,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알고리즘 설계 및 활용 학습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워드프로세서와 같이 일상적인 도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교사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가 인공지능 융합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성 강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들은 “학생의 손에 인공지능을 주어줘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전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AI 특성화고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AI-사물인터넷(IoT)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학생 교육, 교육 민원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KT-산하정보기술 MOU

AI 기반 스마트호텔 솔루션 구축 ‘맞손’

양사 기술 협력 신규서비스 개발

KT는 호텔리티 통합 솔루션 기업 산하정보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호텔 솔루션 구축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금천구 산하정보기술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 산하정보기술 손학기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하정보기술은 국내 유수 호텔 대상 예약관리,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PMS) 등 호텔 정보기술(IT)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KT는 호텔 전용 솔루션 ‘기자지니 호텔’과 산하정보기술의 PMS 연동을 통해 호텔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 금천구 산하정보기술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KT AI사업단장 김채희(왼쪽) 상무, 산하정보기술 손학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이와 함께 양사는 AI 호텔을 넘어 리조트, 산후조리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기자지니’를 탑재한 신규 호텔리티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KT는 이미 산하정보기술 PMS와 연동을 통해 기자지니 호텔에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지니뮤직 가상형 실감음악 서비스

“3D-8K VR도입… 집에서 공연 직관”

소비자에 새로운 콘텐츠 가치 제공
MD 상품에서 향후 구독형 서비스로
“5G 시대 실감형 콘텐츠 기업 전환”

선흥빛 ‘마마무’ 로고가 새겨진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쓰니 가수 마마무 네 멤버가 눈앞에서 ‘너나 해’, ‘우리끼리’ 안무를 추고 있다.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 백댄서와 연주 중인 밴드도 눈에 띈다. HMD 헤드를 한 번 터 치면 렌즈가 확대돼 가까이에서 멤버들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좋아하는 가수의 최신 앨범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하듯 가상현실(VR)로 보고 듣는 시대가 왔다. 지니뮤직의 가상형 실감음악 VP(버추얼 플레이)를 통해서다.

조훈 지니뮤직 대표는 10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부터 음악 플레이어의 기술 혁신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음악 콘텐츠의 가치를 제공하며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왔다”며 “버추얼 플레이를 향후 구독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5G 시대 실감형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이 내놓은 버추얼 플레이어는 가상·증강현실(VR·AR), 휴로그램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음악 콘텐츠를 융합해 제공하는 가상형 실감 음악 서비스다. 지니뮤직은 향후 케이팝뿐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 무대로도 서비스를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도



조훈 지니뮤직 대표가 세계 최초로 가상형 실감음악 VP(Virtual Play)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니뮤직

진출할 계획이다.

우선 지니뮤직은 이날 KT 슈퍼VR 와 콜라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360도 3D-8K VR 기술로 구현한 마마무의 가상형 실감 음악 VP 앨범을 출시했다.

기자가 직접 이 기기를 머리에 써보니 마마무의 공연을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지니뮤직은 실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무대의 360도 전 방향에 밴드와 백댄서를 배치하고, 카메라를 중심으로 무대를 이동하며 펼치는 퍼포먼스를 구성했다.

조훈 대표는 “현재 개발 중인 실시간 스티칭 기술이 활성화되면 리허설 때 공연을 찍는 방식도 가능해진다”며 “인공지능(AI) 기술도 들어가면 이용자가 환호성을 지를 때 호응을 보이는 인터랙티브 연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티칭 기술은 영상을 이어 붙이는 것으로, VR 영상은 여러 개 카메라로 각각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시점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니뮤직은 알파서클과 VR 실시간 스티칭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멀티디자인(MD)의 상품이 아닌 일정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방안이다.

주주인 KT의 슈퍼VR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최강의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CJ ENM과도 협력도 강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비상교육, 남미 교육시장 진출…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 기간 7년 이내 최소 23억 수입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이 처음으로 남미 교육시장에 진출한다.

비상교육은 파라과이의 교육기업 ‘졸레스 테크놀로지’와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고 시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졸레스 테크놀로지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본사를 둔 교육 및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40년 이상 교직 경험이 있거나 20년 이상 스마트학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올해 설립했다.



비상교육이 파라과이의 교육기업 ‘졸레스 테크놀로지’(Joless Technologies)와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버전 공급을 마쳤다. 계약 조건은 최소 판매 목표를 약속하는 미니멈 캐런티 방식으로, 계약 기간 7년 이내 최소 23억 원의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

졸레스는 현재 공립학교 등 6개 교육 기관에서 방과후 학교 및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잉글리시아이 스페인어 버전으로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4년까지 영어 교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학교에 중점적으로 잉글리시아이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SK네트웍스, 착한 무선 이어폰 출시… 대당 1만원 기부

에이프릴스톤 A20 한정판 선봬
기부금,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SK네트웍스가 착한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다.

SK네트웍스는 자사 브랜드 ‘에이프릴스톤’이 만든 ‘에이프릴스톤 a20’ 세이브더칠드런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a20은 지난 9월 출시된 블루투스 이

어폰으로, 연결 안정성과 음질,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레드 디자인상을 수상해 디자인 우수성도 증명했다.

특히 한정판은 2000개만 제작되며, 세이브더칠드런 파우치를 더해 붉은 선물 박스로 포장했다.

SK네트웍스는 1대당 1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IC T 취약계층 아동들의 IT 기기 구매 및



SK네트웍스는 에이프릴스톤 a20 한정판을 출시하고 판매 1대당 1만원을 기부한다.

/SK네트웍스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